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인만	9 30 기본 좋은 날	05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간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월화미니시리즈 <남자 이야기>(재)	11 00 수목미니시리즈 <신데렐라 맨>(재)	00 현정리포트 사람세상(재)
00 KBS 뉴스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희망특강 피랑새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엄마가 불났다>(재)	20 대결 노래가 좋다(재)	1 35 통일전망대	00 네트워킹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KBS 중계식 2009 교향악축제 KBS 교향악단	10 KBS 네트워크-cnsajs	2 15 희망나눔 무지개	00 SBS 뉴스 10 NEW 내서실지오그래픽의 세계(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람의 가족 30 TV유치원 피니파니	00 2TV 스페셜 1 대10(재)	3 05 앙코르 MBC 프리엠 <도박, 영혼을 베행한 사람들>	00 KBC 열린토크쇼
00 KBS 뉴스 5 15 동물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비타민>(재)	4 00 뽀뽀미 꿈동산(재) 40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테마스페셜(재)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거꾸기	10 무한지대	6 50 MBC 뉴스	25 생방송! KBC 투데이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구	7 00 TV 전국기행 <표선과 남원에 가다>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타처 떠따따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00 KBS 뉴스 9	00 위기탈출 넘버원 55 월화미니시리즈 <남자 이야기>	8 15 일일연속극 <법정>	00 SBS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TV 로펌 솔로몬
00 가요무대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창사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스페셜 <지명고>
00 KBS 뉴스라인 30 역사추적	05 미녀들의 수다	10 15 문화콘서트 난장	05 아심만만 2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K리그	15 생방송 시사 360 45 한국 한국인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15 다크 트라인 45 세네모트(재)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9:35 또또바를 찾아라	15:20 알록달록 콩콩이	19:25 이상한 나라의 풀
06:30 세계테마기행 <카프카스의 영혼, 그루지야>	09:45 차로와 친구들 10:00 60분 - 부모	15:35 달라라! 도라라(재)	19:50 어린이 모험극 <스파크> 고신자 김준호
07:10 리틀 프린세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깨미랑 부키(재)	20:20 퀴즈장사 만만세
07:25 아비타 아양의 전설	11:30 디류 프라이미	16:20 리틀 프린세스(재)	20:50 세계 테마 기행 <하늘이 내린 땅, 쓰촨>
07:50 최치록 특강	<엄마는 무엇으로 사는가>	16:35 페널로페, 뭐 할까?(재)	21:30 <생방송> EBS 뉴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20 김영수의 시기와 21세기	16:40 짝퍽폭죽 처갓집(재)	21:45 지식채널 e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13:10 똑똑! 영아놀이터	16:5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디류 프라이미
08:30 뽀뽀미 친구	13:30 이상한 나라의 지니	17:10 워드 월드	<16인의 성공도전, 실력의 비결>
08:40 달라라! 도라라	13:55 아! 리그레츠	17:35 신나는 과학 에니메이션 <Why?>	22:40 요리비전(秘傳) <삼진검체합>
08:50 깨미랑 부키(재)	14:20 뽀뽀미 시즌2	17:50 <생방송> 특! 특! 보너스!	23:10 디류 10 +
09:00 뽀뽀미 뽀뽀미	14:30 아비타 - 아양의 전설	18:50 뽀뽀미 시즌 2	00:00 지식채널 e
09:15 방귀대장 뽀뽀미	14:55 또또바를 찾아라(재)	19:00 아비타 - 아양의 전설	00:10 EBS 스페이스-공간
09:30 페널로페, 뭐 할까?	15:05 방귀대장 뽀뽀미(재)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 <수학 1>	15:20 EBS 탐스런(재)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한국근현대사>
08:40 <과학>	16:10 <물리 1>
09:30 EBS 학습자료실 <국어(상)>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09:40 EBS 수능 플러스 <언어영역>	<한국근현대사>
10:30 세계테마기행 <국어(상)>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2:00 EBS 내신 6급 <국어(상)>	18:00 EBS 포스(재) <고전문학>
12:50 <물리>	19:00 <수학 1>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국어(상)>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14:30 <과학>	<물리 1>
	<일본어>
	21:00 <수학 8-기>
	21:50 EBS 수능특강(재) <언어영역>
	23: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언어영역>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학 1학년 <국어>	시험대비경작-이론편(재)
08:40 <수학 1-1>	10:00 방귀대장 뽀뽀미 <국어 3-1>
09:20 EBS 중학 1학년 <국어>	10:15 당동명 유치원 <국어 4-1>
퍼펙트 체크업 <국어>	10:35 알록달록 콩콩이 <국어 5-1>
10:00 방귀대장 뽀뽀미 <국어 6-1>	10:50 또또바를 찾아라 <수학 8-기>
10:15 당동명 유치원 <국어 3-1>	11:00 어린이 모험극 <스파크>
10:35 알록달록 콩콩이 <국어 4-1>	12:0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10:50 또또바를 찾아라 <수학 8-기>	12:40 <수학 8-기>
11:00 어린이 모험극 <스파크>	13:20 EBS 중학 2학년 <국어>
12:0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퍼펙트 체크업 <국어>
12:40 <수학 8-기>	14:00 EBS TV 중학 2학년 <도덕>
13:20 EBS 중학 2학년 <국어>	15:30 2009 공인중개사 <국어>

김정은 “초콜릿”은 삶의 달콤한 중독

SBS 음악토크쇼 '김정은의 초콜릿' 1년 순항... "장수프로 만들고파"

지난해 3월 SBS TV '김정은의 초콜릿'을 출산시킨 김정은이 지난 1년 키를 잡아 멋지게 향했다. 세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제작진과 김정은의 노력이 어우러져 심야 방송인데도 광고가 잘 붙고 회를 거듭할수록 호평이 쌓여간 것. SBS는 그 '공'을 인정해 수요일 밤 1시께 방송되던 이 프로그램을 지난 봄 개편 때 토요일 밤 12시20분으로 과격 배치했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이 제게 기분 좋은 중독이 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초콜릿’이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즐기면서 오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최소 10년은 하고 싶다는 욕

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초콜릿’에서 살사 댄스를 추고 기타를 연주했으며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쳤다. “뽀뽀미가올거울” 앞에서 기타를 치고, 김은아씨 앞에서 ‘헤이헤이헤이’를 부르면서 정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웃음) 살사를 할 때는 기절할 만큼 떨렸구요. 하지만 그래도 낫잖아 했어요.(웃음)”

지난해 11월 그는 뜨거운 연애의 끝에서 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지만 매주 ‘초콜릿’의 무대에 올라야했다.

“결별이 보드문 날 녹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대에 오르니 해오던 대로 제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결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조용히 지켜봐줘’라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관객에게 전했다.”

인터뷰 내내 행복감에 눈을 반짝이던 그는 말미에 “방송을 통해 내 사심을 채우기도 한다”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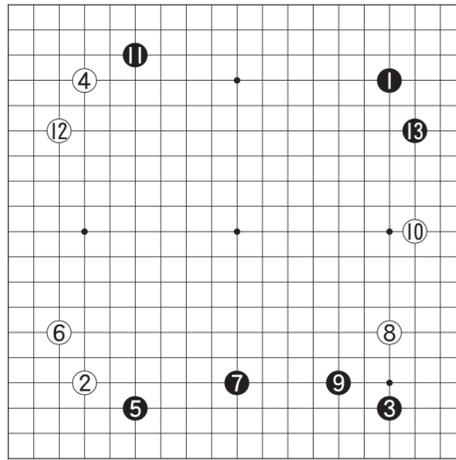
“얼마 전 영화 ‘원스’의 주인공들이 출연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보니 행복했죠. 앞으로는 한국을 찾는 해외 스타들도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 사심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에요.” /연합뉴스



제6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흥미로운 결승전’ 최강부 결승전 1보(1~13)

白 권세혁 6단 黑 심재욱 6단



드디어 아마 최강자라는 타이틀이 새겨진 우승컵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흥미로운 결승전이 수많은 관전자들로 둘러싸인 긴장감 감도는 분위기 속에 시작되고 있다.

결승에 오른 두 주인공은 준결승에서 기용성 5단에게 노장의 매운 맛을 보여주며 역전승을 거둔 심재욱 6단과 처음부터 철저한 실리작전으로 다크호스였던 임상현 6단을 깨끗하게 일축한 권세혁 6단.

흑을 든 심재욱 6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지적 아마추어의 최강자로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예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

며 결승에 진출하여 또 하나의 우승트로피를 추가할 기세다.

백을 든 권세혁 6단은 그동안 실력에 비해 입상경력이 적어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이다. 이번에는 손조롭게 강자들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하여 오랜만에 우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흑 7까지는 평범한 진행인데 권세혁이 백 8로 두칸높이 절친간 수가 눈에 띈다. 아마도 심재욱의 전투력을 의식하여 국면을 조개 장기전을 확확하는 작전으로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5월 2일 庚午)

子	36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48년생 신사가 생기기 앞뒤를 살피라. 60년생 안경을 취한 후 생각하라. 72년생 역마기가 발동하니 여행은 길하다. 84년생 예측 불허의 실물수가 보이지만 주의하면 비켜간다. 행운의 숫자 : 12,35
丑	37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내라. 49년생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61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사 주의하라. 73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보여주라. 85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2,28
寅	38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직장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62년생 직장에서 뒷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이 행한 만큼 있다. 74년생 처와 재물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44
卯	3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51년생 횡재수가 보이니 복권을 구매하라. 63년생 건강과 재물은 같은 편이다. 75년생 구설 사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히니 주변을 살피라. 행운의 숫자 : 18,19
辰	40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52년생 돈을 들어오나 쓴 구멍 막기가 바쁘다. 64년생 뜻은 있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은 이르다. 행운의 숫자 : 14,43
巳	41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3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피라. 65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피라. 77년생 신척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4,31
午	42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도 지켜진다. 54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 있으면 멀리서 찾아 마라. 66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이성이 보인다. 78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중할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7,42
未	43년생 사비 또한 분실이 발생하나 큰 손실은 없다. 55년생 시작은 좋으나 끝은 없다. 67년생 신하로 무리하게 힘쓰면 허리가 아프다. 79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행운의 숫자 : 01,41
申	44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니 신의를 지켜라. 56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공이 약속된다. 68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80년생 좋은 이성의 만남이 예상되니 준비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2,43
酉	45년생 주변을 친한만큼 자신도 올라간다. 57년생 지름은 발생하나 오히려 수일이 더 크다. 69년생 지혜는 제사를 순조롭게 만든다 웃어먹게 지혜를 빌려라. 81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려도 큰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23,39
戌	46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한다. 58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70년생 눈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가족을 살피라. 82년생 다른 사람의 불평을 살피면 내 불평도 사라진다. 행운의 숫자 : 03,27
亥	47년생 뜻밖의 황제는 있으나 결과가 크지 않다. 59년생 먼저 배 풀고 그 보답을 받겠다. 71년생 배우자 덕은 본인 스스로 만든다. 83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을 시키라. 행운의 숫자 : 12,30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310>	오하오우 니혼고 <1310>	니하오 쯡구워 <387>	한자 이야기 <1027>
<p>Maybe I should give it a try</p> <p>나도 한번 해 봐야겠군요</p> <p>A : We took the kids to roller blade yesterday. It was fun.</p> <p>B : I've thought about doing that. But I'm afraid of falling.</p> <p>A : I didn't fall at all. It is the same as roller skating.</p> <p>B : Maybe I should give it a try.</p> <p>A : 저희는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롤러블레이드장에 갔었어요. 재미있던데요.</p> <p>B : 저도 역시 그렇게 한번 해 볼까했었어요. 추락할까 무서웠거든요.</p> <p>A : 전혀 그런 일 없었는데요. 롤러스케이팅하고 똑같아요.</p> <p>B : 나도 한번 해 봐야겠군요.</p> <p>* fun : 재미있는</p> <p>* give it a try : 한번 시도해보다</p> <p>* kid : 아이</p>	<p>サボるわけにいかないでしょ</p> <p>땡땡이칠 수는 없잖아</p> <p>A : ああつまんない。私(わたし)この授業(じゅぎょう)と相性(あいしょう)わるいのよ。</p> <p>B : だからって、サボるわけにいかないでしょ。単位(たんい)足(た)らないだし。</p> <p>A : そうなのよ。そうだ、何(なに)かに讀(よ)むのいい? 雑誌(ざっし)とか。</p> <p>B : あるけど、大丈夫(だいじょうぶ)なの? 鈴木(すずき)教授(きょうじょう)結構(けっこう)厭(きら)しいわよ。</p> <p>A : 아~ 지겨워. 난이 수업 정말 안 맞는다니까.</p> <p>B : 그렇다고 땡땡이칠 수는 없잖아. 학점도 모자르고.</p> <p>A : 그렇게 말아야. 맞아. 평가 잃을 거 없어? 잡지라도.</p> <p>B : 읽긴 한데. 괜찮을까? 스키 교수님 꽤 얹어하고.</p> <p>雑誌(ざっし) : 잡지</p> <p>厭(きら)しい : 얹하다</p> <p>単位(たんい) : 학점</p>	<p>熊鷹</p> <p>암표</p> <p>A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B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A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B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A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B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A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だ!</p> <p>B : 熊鷹(くまやう)は危険(けんけん)な品(しん)다!</p> <p>熊鷹(くまやう) : 위험하다</p> <p>品(しん) : 물건</p>	<p>自殺(じさつ)</p> <p>스스로 자살</p> <p>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자살을 범죄행위로 본다. 인간의 육신에서 생명을 이탈(離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할복(割腹)을 선택하였다. 육신을 죽여서 정신을 영혼이 살리고자 함이다. 이야기 '주신구라(忠臣蔵)'로 유명한 아코분(赤穂藩)의 무사 47명도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 군신의 의(義)를 다하고자 하였다.</p> <p>자살하는 사람은 유서(遺書)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서가 없는 자살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유서를 통하여 죽은 이가 지키려 했던 가치(價値), 명예(名譽)를 알 수 있다. 더없는 인생살이를 스스로 끝내면서 자기희생을 통하여 남을 구하려고 하였다던, 그것을 자살로 여길 수 없다.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죽음의 목적이 사적(私的)인 단절이 아니라, 공적(公的)인 소통이기 때문이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p> <p>www.donga.tv ☎ 222-6253</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p> <p>http://kglobal.wo.to ☎ 228-2545</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p> <p>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한예원(韓藝媛)></p> <p>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